

전북연구원이 선정한

2016전라북도 정책 아젠다10

JEONBUK
INSTITUTE
AGENDA 10



Issue Briefing

이슈브리핑 특집호 2016년 01월 08일 발행인 강현직 발행처 전북연구원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밭길로 1696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6 전라북도 10대 아젠다 선정과정

■ 2016 전라북도 10대 아젠다 도출과정

- 2016년도 전라북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8개 메가트렌드 구성요소와 41개 키워드를 전북도정의 이슈와 접목하여 메가트렌드의 지역화
- 2016년 전라북도 주요 예산분석을 통해 도출한 도정 이슈는 안전,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지역경제, 복지·생태, 새만금, 문화, SOC 9개 분야의 42개 사업
- 2016 전라북도 10대 아젠다는 최근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를 분야별 STEEP 분석으로 주요키워드를 도출한 후 전북도정 이슈와의 교차분석을 통해 선정

■ 2016 전라북도 10대 아젠다의 의미

- 세계적인 메가트렌드의 경향과 정부정책의 환경변화 속에서 전라북도가 2016년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를 10개 분야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아젠다를 제시
- 전라북도 5대 전략사업(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복지·환경, 새만금)은 물론 안전·기후변화, 연구개발특구, 미래산업, 사회문화, 지역개발 등 도민의 삶과 전라북도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아젠다 제시

2016 AGENDA 10

1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가치사슬의 완성

2

토탈관광

토탈관광 본격 제도진입

3

탄소산업

탄소산업 C&C
솔루션으로 시장확대

4

복지

전북형 마을복지 공동체 구축

5

새만금

새만금, 지금 필요한건 속도

2016 AGENDA 10

Mega Trend 구성요소

Key Words

S

사회문화

- 분노 사회
- 생산가능인구 감소
- 메르스 기저효과
- 착한 소비

- 갈등심화(이념, 지역, 세대, 성), 사회갈등 비용
- 고용능력강화 대책 마련, 저출산 대책
- 소비 위축, 내수 진작
- 코즈마케팅(Cause Marketing), 기부소비

T

기술

- 디지털 사회
- 융복합 기술
- 농업 + ICT
- 기술혁신 · 사업화

-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범, 디지털인력 양성
- 3D프린팅,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스마트 팜
- 연구개발특구, 창조경제혁신센터

E

경제

- 미국금리 인상 · 가계부채 증가
- 저유가 지속
- 세계경제 재편
- 세계분업구조 약화

- 수입물가 상승, 자본유출, 서민경제, 집값하락
- 자동차 · 조선산업 위기, 신재생에너지 수요감소
- 중국 성장저하, 인도 성장세
- 중국수입품 국산대체, 신성장산업 육성

E

생태환경

- 신기후체제
- 환경오염 심화

- 신재생에너지, 탄소거래 · 탄소제로, 환경산업
- 새만금 수질문제, 미세먼지, 악취심화

P

정치 · 정책

- 한중 FTA
- 2016 총선
- 테러와의 전쟁
- 긴축재정 · 개발규제 강화

- 농업과 탄소산업 약화
- 지역리더변화, 총선공약
- 세계관광 축소, 안전국가 선호(안전국가 1위 한국)
- 복지재정 효율화, SOC감소, 내발적 발전

6



안전 · 기후변화

야누스의 두 얼굴 '환경', 위험은 낮추고 혜택은 높이고

7



연구개발특구

내발적 발전의 원동력, 전북연구개발특구

8



미래산업

전북미래산업: 상용차 자율주행, 농업용 드론, 3Tech 시선집중!

9



지역개발

전북혁신도시, 조성에서 지역연계발전으로 2단계 도약

10



사회문화

3대 국제행사 개최로 전북 글로벌 브랜드 인식 제고

01

삼락농정

J E O N B U K
I N S T I T U T E
A G E N D A 1 0

농업강국과의 FTA 체결에 따라 정부는 피해분야의 경쟁력강화 정책과 함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식품산업육성과 신성장동력 창출의 핵심 거점이다. 2016년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민간육종연구단지에 고부가·수출주도형 농생명산업을 이끌어갈 기업들의 입주가 시작되는 원년이다. 2016년을 기점으로 전라북도는 대한민국의 '먹거리(농업)생산 지역에서 전세계의 '먹거리(농생명산업)기지'로 도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기 활성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종자기업육성, 농생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 과제이다.



농생명산업 가치사슬의 완성

추진과제 1. 적극적 기업유치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기 활성화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급성장하는 동북아 식품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기업·연구소가 집적화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2016년 상반기에 익산에 완공될 예정이다. 세계 식품시장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핵심 3대 연구인프라인 식품기능성평가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와 3대 지원시설인 파일럿플랜트, 임대형공장, 지원센터가 계획대로 완료되고 조기 운영될 필요가 있다. 연구 및 지원 인프라를 통해 국내외 기술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식품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추진과제 2.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종자기업 육성

종자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종자기업·연구소가 집적화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2016년 상반기에 김제에 완공할 예정이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종자업체의 육종연구기반 확충을 지원하고, 2020년 종자수출 2억 달러 달성을 위한 핵심 기지이다. 세계 종자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라 단지에 입주하는 '전문종자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종자산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육종 관련 전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므로 농업연구센터(ARC)와 연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추진과제 3.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으로 농생명산업 가치사슬 연계

2016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연구단지의 완공과 함께 전라북도에는 미생물 → 종자 → 농자재 → 식품으로 이어지는 농생명산업 가치사슬이 완성된다. 농생명산업 연구·기업들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민간육종연구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기관(농촌진흥청, KIST 전북분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선도적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생명산업의 지역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특구와 연계하여 기초·원천연구의 강화 및 고급인력 양성을 핵심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02

토탈관광

JEONBUK
INSTITUTE
AGENDA 10

토탈관광의 新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전북은 행·재정적 지원 시스템과 민간협력 거버넌스가 체계적이고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1시군 대표관광지 지정과 계획 수립을 통해 한 곳 더 방문하고, 하루 더 머물고, 한 번 더 찾아 올 수 있는 대표 관광목적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전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북관광 자유이용권'이 올해 시범적으로 발매되었으며 2016년에는 전북 도내 전체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선진 모델 마련을 위해 1시군 1생태관광지별 마스터플랜이 수립 중이다. 이러한 노력 하에 토탈관광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되면 국내외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며 관광산업이 전북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관광트렌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북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토탈관광 본격 궤도진입



추진과제 1. 관광객 맞춤형 관광패스라인 본격 시행

관광객의 특정 공간 및 지역 집중현상을 방지하고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내 14개 시군에 분산시키기 위해 관광패스라인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북 관광 자유이용권(JB TOUR PASS)'이 발매되기 시작했으며 2016년에는 외래 방문객들이 실질적인 할인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다양한 관광자원과 대중교통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시스템 제공을 통해 관광객의 이동편의성 제공 및 관광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데 일조 할 것이다.

추진과제 2. 동부권 새로운 모멘텀, 산악관광 육성

동부권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 휴양·건강 선도 지역이다.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동과 2017 세계태권도 대회 개최를 준비해야 하며 산림치유의 대표 거점으로 성장하게 될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원활한 조성과 친환경적인 녹색 교통시스템의 대표주자인 산악철도 사업 선정을 위한 논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추진과제 3. 토탈관광의 마중물, 생태관광벨트 구축

전북은 람사르 습지·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우수 자원들이 풍부하다. 전북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과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 국가지질공원 인증 등 우수 생태경관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생태관광자원의 브랜드화 및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홍보 강화, 지역주민의 역량 함양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4. 전북관광 양적 성장과 질적 내실화 병행

지난 수십 년간 전북관광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척도는 관광객 수, 관광수지, 관광자원의 규모 등 양적 가치였으나 최근에는 관광상품 및 서비스의 고품질화, 관광만족도 제고 등 질적 가치가 중요시 되고 있다. 토탈관광의 핵심가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전북형 통합관광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외래 관광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광상품·서비스 통합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관광객 만족도 및 재방문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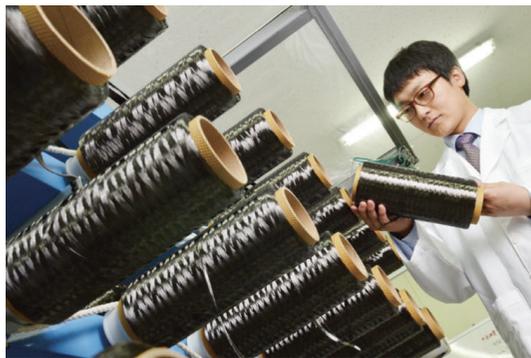
03

탄소산업

J E O N B U K
I N S T I T U T E
A G E N D A 1 0

전북 탄소산업의 세계시장 8% 확보를 위한 전략이 본격 추진된다. 올해는 2025년까지 관련 기업체 240개를 유치하고 일자리 3만 5천개를 창출한다는 ‘탄소산업 2025 비전’ 로드맵의 원년이다. 성공적인 비전 달성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다. 상용화(Carbon-Commercialization)와 가격(Carbon-Cost)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추지역으로 홍보 강화와 기술창업, 탄소섬유 체험 등 도민과 함께하는 탄소문화(Carbon-Culture) 창달도 요구된다. 계획된 전략이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 탄소산업 번성에 확고한 디딤돌을 놓는 한해가 될 것이다.

탄소산업 C&C¹⁾ 솔루션으로 세계시장 확대



추진과제 1. 탄소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통과

탄소섬유 상용화 가능 Value Chain 확보, 탄소소재 및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탄소기업이 집적되고 관련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경북과 공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총사업비 1조 원대의 탄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타 통과가 절실하다. 이에 전북도민 모두가 올해 상반기에 있을 결과 발표를 주목하는 이유이다. 조속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와 협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

1) 상용화 Commercialization, 가격 Cost

추진과제 2. 전북 4대 전략산업과 친밀도 강화

탄소산업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탄소소재가 자동차, 조선, 신재생에너지, 농·건설기계 등 전북의 4대 전략산업과 보다 친밀해져야 한다. 4대 전략산업별 탄소소재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4대 전략기치 조성이 올해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전략산업과 연계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상용화 제품 개발, 세계 진출 등의 종합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추진과제 3. 탄소제품 Star-스타트업 배출

탄소 상용화를 위해서는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전국 곳곳에 숨겨진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탄소소재 활용도를 높이고, 안전과 의료기기 등 비교적 가격에 구애받지 않는 고부가 제품개발이 절실하다. 올해는 공공연구기관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특구, 탄소에 특화된 창업보육센터 등이 본격 운영된다. 또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창업지원이 이루어진다. 탄소제품을 활용한 글로벌 'Star-스타트업' 배출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04

복지

J E O N B U K
I N S T I T U T E
A G E N D A 1 0

전라북도의 복지전달체계는 우리지역의 복지수요와 공급형태에 맞게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복지전달체계가 국가의 재정을 기반으로 작동되는 행정기관중심의 복지였다면 이제는 주민의 다양한 참여를 확대하여 민관이 함께 연계하여 보다 밀착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중심의 복지로의 전환되어야 한다. 마을복지는 재정에 의존하는 복지가 아닌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복지 모델로 복지의 제공주체를 복지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복지의 제공주체로 확장하는 공동체형 복지이다.



전북형 마을복지 공동체 구축

추진과제 1. 복지전달체계의 핵심 축을 행정단위에서 마을단위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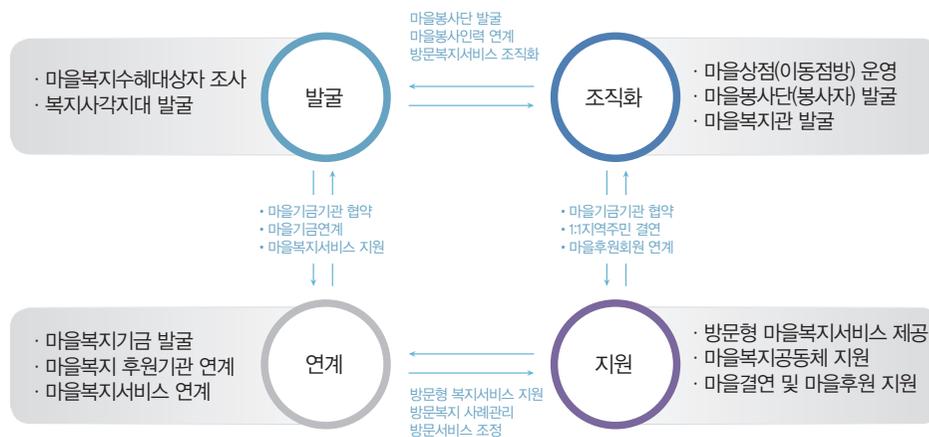
전라북도의 복지전달체계의 핵심 축을 기존 행정단위에서 마을단위로 세분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에게 보다 밀착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을단위에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복지서비스가 마을단위에서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맞는 최적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진과제 2. 복지의 제공주체를 복지시설에서 지역자원으로 다원화

복지의 제공주체를 전통적인 복지시설에서 병원, 학교, 반상회, 주민자치회 등 지역자원으로 다원화하여 마을단위에서 다양한 복지 제공주체들이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자원의 다원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추진과제 3. 복지재원을 국가재정 중심에서 주민참여 기금으로 확대

지역주민이 마을단위에서 스스로 복지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발적 기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읍면동단위까지 민간 연계조직인 지역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마을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이 마을의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는 선순환 마을복지를 구현해야 한다.



출처: 전라북도 마을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 전북연구원, 2015

05

새만금

JEONBUK
INSTITUTE
AGENDA 10

새만금사업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이 설치되어 부처간 조정 및 중심 역할로 속도감 있는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내부간선도로인 동서2축과 남북2축 그리고 방파제 공사가 완료되어 호안 및 접안시설 등 본격적인 항만공사가 진행되는 새만금신항만까지 기반시설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됨에 따라 투자유치도 더욱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되면 새만금으로의 접근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며, 2015년 한중간 공동연구를 통해 예열을 마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 역시 한중 FTA 발효와 함께 선도사업인 한중 FTA산업단지 조성 등 본격적인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새만금, 지금 필요한건 속도



추진과제 1. 전북의 하늘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2016년 신규예산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타당성 용역비가 확보되면서 전북 최대 현안사업에 청신호가 켜지게 되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성공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용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항이 완공될 때까지 전북은 하나의 목소리로 총력을 기울여 전북권 하늘길이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속도전을 준비해야 한다.

추진과제 2.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조성을 위한 공동연구(중국거시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가 마무리되면서 후속조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중 FTA 체결로 협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한중 FTA 산업단지가 우리나라에서는 한중경협단지의 선도사업으로 새만금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한중간의 다양한 협력을 발판으로 새만금은 진일보하고 있는 한중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게 될 것이다.

추진과제 3. 새만금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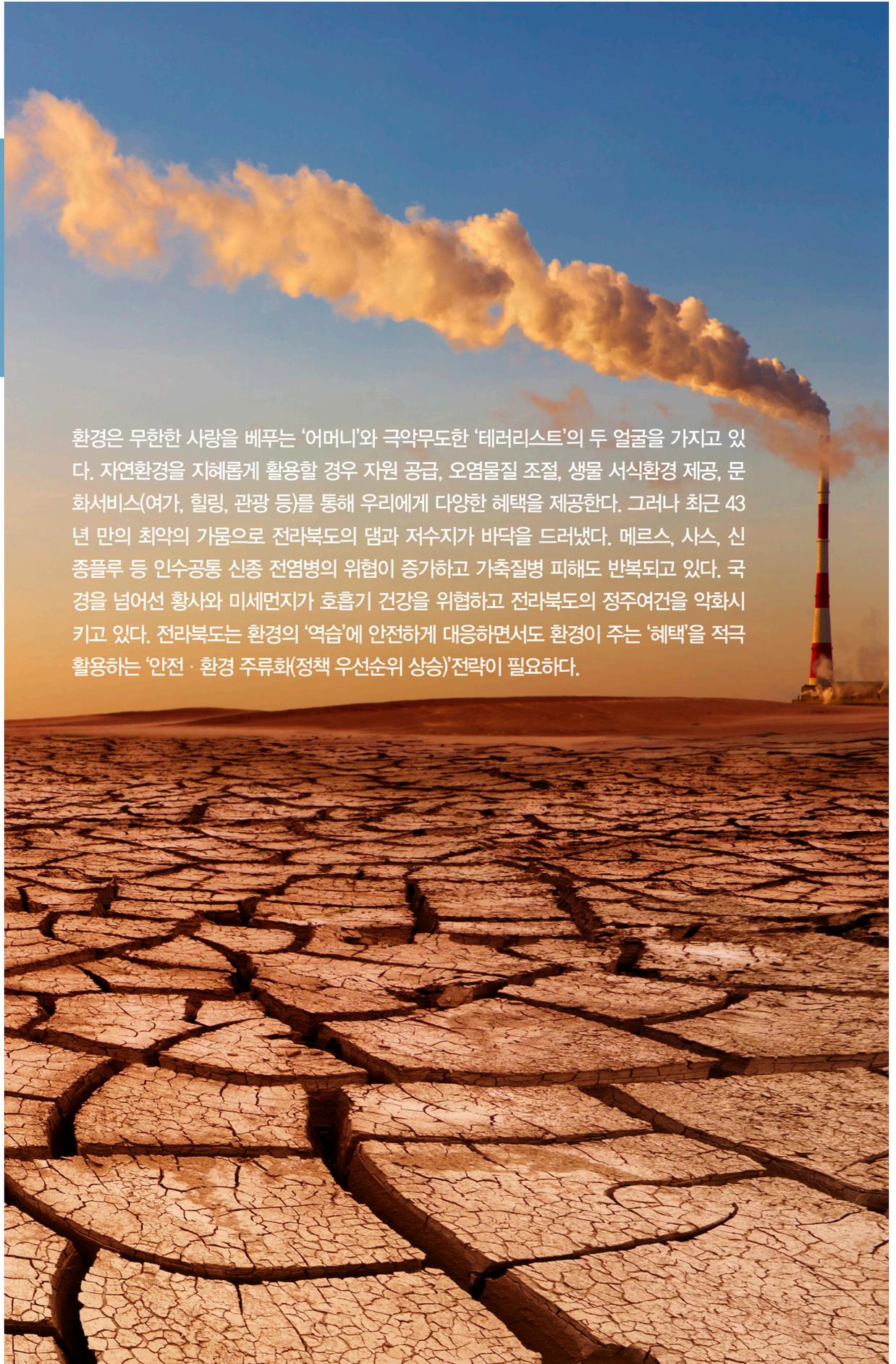
새만금사업은 국가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며 그 세부사업들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새만금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다. 특히 새만금은 한·중 양국이 한중경협단지와 한중 FTA 산업 등 한중경제협력의 거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사업이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난 1991년 착공 이후 24년째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적기 또는 조기개발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06

안전 기후변화

JEONBUK
INSTITUTE
AGENDA 10

환경은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와 극악무도한 '테러리스트'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자연환경을 지혜롭게 활용할 경우 자원 공급, 오염물질 조절, 생물 서식환경 제공, 문화서비스(여가, 힐링, 관광 등)를 통해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 43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전라북도의 댐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다.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 인수공통 신종 전염병의 위협이 증가하고 가축질병 피해도 반복되고 있다. 국경을 넘어선 황사와 미세먼지가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고 전라북도의 정주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전라북도는 환경의 '역습'에 안전하게 대응하면서도 환경이 주는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안전·환경 주류화(정책 우선순위 상승)'전략이 필요하다.



아누스의 두 얼굴 '환경', 위험은 낮추고 혜택은 높이고

추진과제 1. 계속되는 기후변화 테러, 잠시도 방심할 수 없다

2016년에도 예측 어려운 가뭄, 홍수, 폭설, 폭염, 이상기상 등에 따른 자연의 역습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 대응 수준으로 분야별(건강, 농업, 재난재해 등)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반복되는 가뭄 대응을 위한 댐-저수지-하천 연계운영 시스템 구축, 지하수 통합관리, 빗물 활용 및 물 재이용 등을 통해 생명용수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2. 신종 바이러스 공포, 준비만이 살 길이다

기후변화(기온상승)에 따라 전염병 발생률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된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 인수공통 신종 전염병은 120종으로 그 중 30~40%가 국내에서 발병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5) 전라북도 차원의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관리 인프라 확보, 예방 및 대응 훈련, 도민 홍보·교육 등을 통해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3. 전라북도의 보물 생태환경자원 활용 본격화

전라북도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국가지질공원 인증 등 우수 생태환경자원 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의 우수 생태환경자원과 역사, 문화, 관광 등이 융합한 통합 브랜드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북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이 참여자에게 환원될 수 있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4. 더 쾌적하고 건강한 전라북도를 위한 '청정 전북'

국경을 넘나드는 미세먼지와 황사,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축산 악취에 대한 대기환경 개선 요구가 정점에 이르렀다. 대기환경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측정망 확충, 현황판 설치 등의 신속한 정보전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염원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기환경 문제 공동해결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청정 전북' 원년을 맞이한다.

07

연구개발 특구

JEONBUK
INSTITUTE
AGENDA 10



2015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였다. 연구개발특구는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에 이어 다섯 번째로, 도 단위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의 설립과 함께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특구 운영사업이 시작된다.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조기에 활성화 되어 전북발전의 원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과 지역 혁신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발적 발전의 원동력, 전북연구개발특구

추진과제 1. 농생명·융복합소재 특화 성장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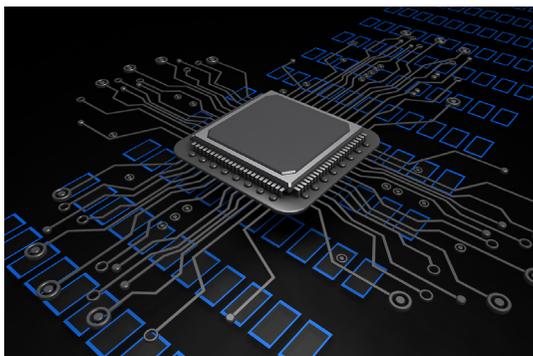
전북연구개발특구는 타 특구와 차별화되는 농생명융합산업과 융복합소재부품산업을 특화분야로 선정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전북연구개발특구가 가진 특화분야의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기업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전북지역의 여건과 특화분야의 특성에 맞춘 특성화된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와 함께 핵심 인재 양성, 기업지원 등 통합적인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선도하는 특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차별화된 전북연구개발특구 성장 전략의 추진이 요구된다.

추진과제 2. 기술벤처 친화적 선순환 창조생태계 조성

전북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술사업화 지식서비스기반,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앵커기업, 산업밸류체인 형성, 벤처금융시스템 등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기술창업과 성장 지원, 기술금융 공급기반 구축 등을 통해 전북연구개발특구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창업, 성장 및 재도전 활성화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기술사업화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술벤처 친화적 선순환 창조생태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추진과제 3. 테크비즈센터 설립으로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

전북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특구 내외의 다양한 혁신주체들과 연계하여 기술창업 및 기술사업화를 통합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전북테크비즈센터를 설립하여 기술개발에서 창업 및 성장에 이르는 전주기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지원하고 연구소기업 및 기술창업기업의 창업공간을 제공하며 산학연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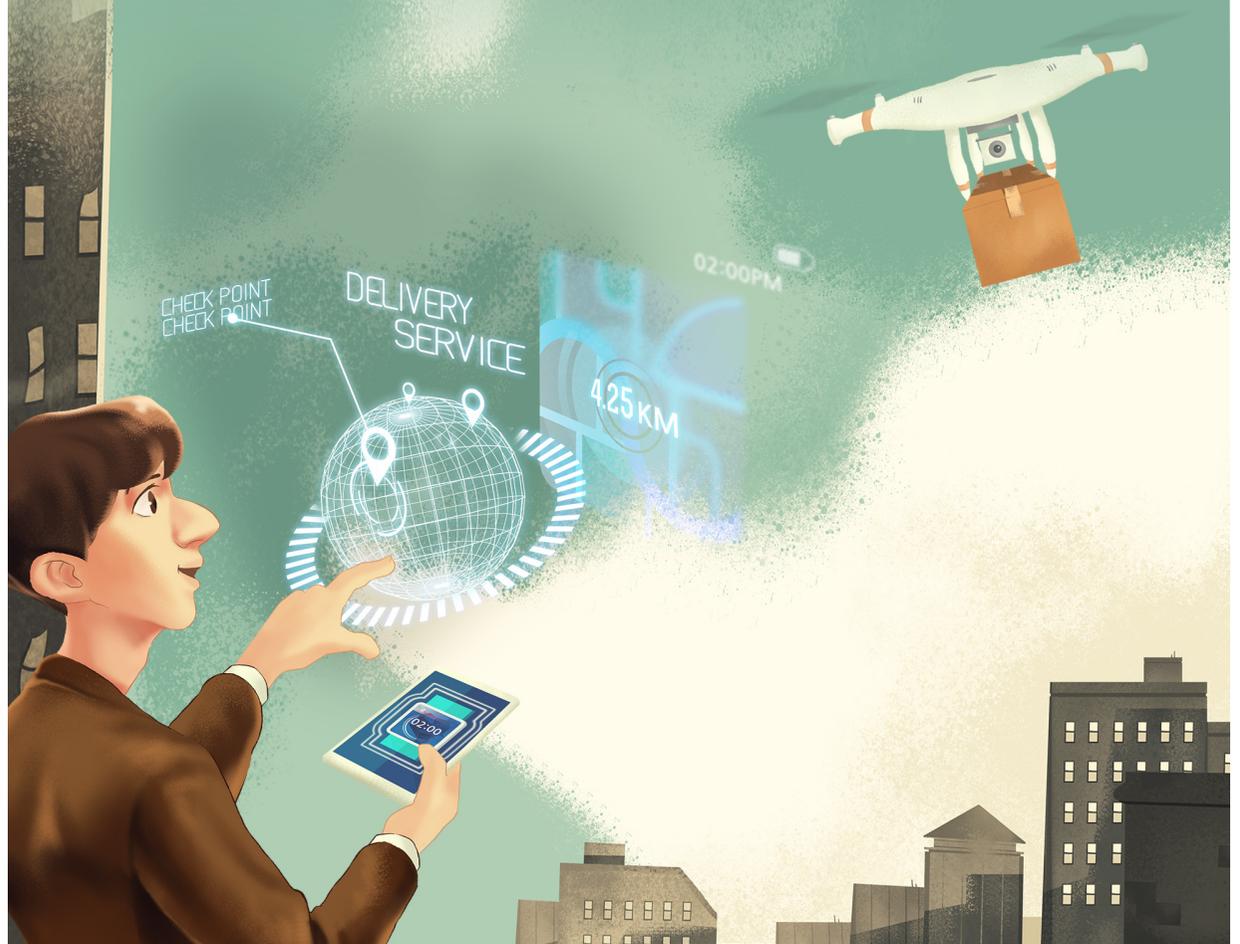


08

미래산업

JEONBUK
INSTITUTE
AGENDA 10

기존 전통산업과 SW의 융합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이는 세계화 시대 속에서 전북의 전략산업도 예외 일 수 없다. 전북 제조업의 중심인 자동차는 ICT로 가동되어 보다 스마트해지고 있으며, 농식품 분야에서도 SW를 통해 새로운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다. 이같은 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상용특장차 중심의 자율주행, 드넓은 전북의 평야를 나는 농업용 드론 등 융·복합 기술 중심의 미래 먹거리를 키워야 한다.



전북 미래신산업: 상용차 자율주행, 농업용 드론, 3Tech 시선집중!



추진과제 1. 자율주행 시대 대응 상용차 전장화 기반 조성

많은 전문기관들이 올해 산업 이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꼽았다. 정부는 지난해 고속도로와 국도의 일부 구간을 시범구간으로 확정하고 2020년까지 상용화 추진을 발표했다. 이는 전북 제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첨단 IT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시스템 기술개발, 상용차 전장화 기반조성 추진 등을 통해 전라북도 미래형 자동차산업을 육성시키는 전환의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

추진과제 2. 농생명 수도 전북, 농업용 드론산업 비상(飛上)

드론(Drone) 활용 범위와 수요가 폭발적이다. AUVSI(국제무인시스템협회)에 따르면 향후 드론시장(2025년 약 85조 규모 전망)의 80%가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농업용 드론에 있어서 탄소소재와 이의 가공기술을 이용한 기체 경량화는 필수적이다. 또한 드론을 띄우기 위한 넓은 평야 이를 연구하고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단체도 필요하데 전북은 이 같은 여건을 잘 갖추고 있다. 보다 많은 기업, 연구소 등이 전북에 모여 클러스터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실행전략 수립에 머리를 모아야 한다.

추진과제 3. 농생명 · 식품 + ICT = 3Tech(Ag-Tech, Food Tech, Bio-IT Tech) 육성

세계적으로 농생명 · 식품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신산업 창출 열풍이 불고 있다. 전북에서도 농업(Agriculture), 식품(Food), 미생물(Bio) 등에 ICT를 융합시켜 어그테크(Ag-Tech), 푸드테크(Food Tech), 바이오테크(Bio-IT Tech) 등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산업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올해 전라북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완공, SW융합 클러스터 본격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기술창업, 창의 인재 양성 등 3Tech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 및 실현시켜야 할 한해이다.



09

지역개발

J E O N B U K
I N S T I T U T E
A G E N D A 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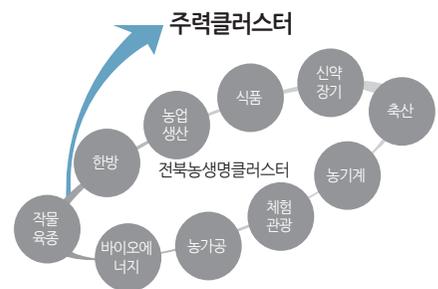
전북혁신도시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 발표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및 2008년 전북혁신도시 공사착공 후 2015년 현재 농촌진흥청과 지방행정연수원, 국민연금공단 등 11개 기관이 입주하였고 2017년 8월 식품연구원이 입주하면 혁신도시 이전사업이 마무리된다. 전북혁신도시는 사실상 2015년까지 기반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등 물리적 개발이 완료되었다. 이제는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산업으로 연계시키고 공공기관과 지역주체가 협력하여 함께 추진 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위원회는 혁신도시별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기본전략을 마련 중에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6년은 전북혁신도시가 물리적 조성에서 지역연계발전으로 2단계 도약을 시작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에서 지역연계발전으로 2단계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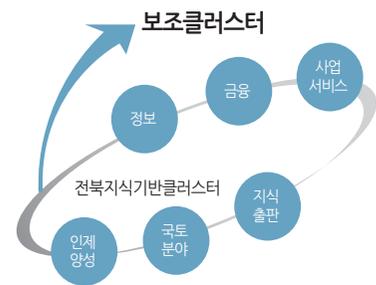
추진과제 1.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혁신도시 특별법 5조에는 혁신도시내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전라북도 2015년 농생명 클러스터를 주력클러스터로 하면서 금융, 국토정보, 지식출판, 인재양성 등의 지식산업서비스 클러스터를 보조클러스터로 하는 전북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근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소를 연계하여 혁신도시의 지속적 성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거점기관으로 산학연유치지원센터가 필요하다. 둘째, 초기에 농생명, 연기금관련 선도기업이 존재하여 향후 다양한 벤처기업의 활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산학연 클러스터 융지분양률을 높여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농생명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추진과제 2.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산하 공간정보연구원의 뒤늦은 이전, 이전 인원이 불일치하거나 서울에 잔류인원을 남기는 등의 승인계획과 다른 이전기관의 조속한 완전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 이후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70여개 공공기관의 제2차 지방이전을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농생명, 국토정보,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은 전북혁신도시의 경쟁력을 가속화 시켜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재)한식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방사선안전재단 등의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해야 한다.



출처 :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전라북도, 2015

이전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구축 개념도

추진과제 3. 제3의 금융허브 육성

2015년 5월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였고 2016년 말에는 약 50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영본부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금운영본부는 전북혁신도시에서 연기금 1천조원(2022년)과 2천조원(2033년)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기금운영본부의 전북이전으로 금융 불모지였던 전북은 서울과 부산에 이은 명실상부한 국내 제3의 금융허브로 떠오르게 된다. 기금운영본부의 전북이전에 맞춰 그 효과를 전라북도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센터 조성과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승격 추진, 연기금 특화 인력양성 등의 금융산업 로드맵을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

10

사회문화

JEONBUK
INSTITUTE
AGENDA
1 0

2015년은 익산 백제역사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유치를 통해 전북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한 한해였다. 국제행사는 미래 신성장동력인 MICE산업의 주력사업 중 하나로 관광객 1인당 380만원의 경제효과를 보이는 21세기 굴뚝없는 산업의 대표주자이다. 대규모의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없는 전라북도로서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전라북도 맞춤형 국제행사 개최를 모색해야 한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2016년 개최예정인 국제행사와 세계대회 유치를 통해 향후 국제회의 도시 및 국제회의지구 지정을 통해 마이스(MICE)산업을 전라북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3대 국제행사 개최로 전북 글로벌 브랜드 인식 제고

추진과제 1.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성공적 개최

세계 최대규모의 지방정부관련 국제기구인 UCLG-ASPAC(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가 2016년 9월 군산컨벤션센터에서 아태지역 회원국 21개국 114개 단체 500여명의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의 경쟁 단위가 국가에서 도시 단위로 재편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전세계적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 생명, 문화'를 주제로 지방정부의 미래를 논의할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라북도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길 기대한다.

추진과제 2.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담금질

올해는 '태권도 진기 명기 페스티벌'과 '리우올림픽 국제심판 초청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차질없는 준비와 도민의 참여분위기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2016년 태권도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태권도원 진입도로 확장, 태권전과 명인전 국가추진 등의 논리 제공과 지역경제활성화 연계전략의 시범운영 등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지역파급효과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담금질 역할을 할 것이다.

추진과제 3.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전라북도는 지난 11월 개최된 2015 아·태스카우트총회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의 새만금 유치를 공식 선언하고 국제적 광폭행보를 시작했다. 현재 폴란드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지 결정은 2017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41차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유치는 향후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는 물론 새만금 국제공항 및 동서인프라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올해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유치를 위한 국제적 총력전의 해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효자동3가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